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三使臣) 조복(朝服) 제작을 위한 제언

이영주·김효숙^{*†}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수료·건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for the production of three envoys at the Joseon tongsinsa festival

Yeong-Ju Lee·Hyo-Suk Kim^{*†}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Konku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onkuk University^{*†}

(2019. 3. 8 접수; 2019. 5. 21 수정; 2019. 6. 19 채택)

Abstract

The Joseon Tongsinsa Festival has been held annually in May in Busan. It reenacts the procession of the *Joseon Tongsinsa* that the *Joseon* Government delegated to Japan four times in the 18th century. In the most important situation during the meandering period, three envoys (*Jeongsa*, *Busa*, *Jongsagwan*) who led the *Joseon Tongsinsa*, wore *Jobok*, but at the Joseon Tongsinsa Festival, the three envoys are wearing *Jobok*, which are not historically accurate. The *Jobok* called *Geumgwan Jobok* and were comprised of *Yanggwan*, *Eui*, *Sang*, *Jungdan*, *Peasul*, *Su*, *Pumdae*, *Daedae*, *Paeok*, *Hall*, *Mal*, and *Hwa*. These were ranked from first class to ninth class by personal ornamentation such as *Yanggwan*, *Su*, *Pumdae*, *Paeok*. So, this study is focused on ascertaining the *Jobok* of the 18th century for the three envoys who were ranked third grade.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artifacts, and portraits that can depict the 18th century *Jobok* including all components. It was based on The 7th Korean Human Body Survey Final Report (2015) in order to produce all components of the *Jobok* of the modern males in their 50s who are playing the role of the three envoys in the Joseon Tongsinsa Festival.

Key Words: Jobok(조복), Joseon envoys(조선통신사), three envoys(삼사신), the Joseon envoys festival(조선통신사축제)

I. 서론

조선 통신사는 조선과 일본 양국의 평화를 위해 조선에서 파견한 국가 사절단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를 담당하고 평화증진에 기여했던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이어 받아 2002년 한일 양국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 부산문화재단과 교류하며 매년 5월 부산에서는 조선통신사 축제를, 일본의 쓰시마에서는 8월에 이즈하라랑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두 곳 모두 18세기에 있었던 사행, 신묘사행(1711년), 기해사행(1719년), 무진사행(1748년), 계미사행(1763년)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를

[†]Corresponding author ; Hyo-Suk Kim
Tel. +82-2-450-3785
E-mail : kimsook@konkuk.ac.kr

치르고 있다. 특히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2015년부터 한일 양국이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10월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조선통신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화원(畫員)·의원(醫院)·역관(驛官)·악사(樂士) 등 총 4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대 사절단인 조선통신사의 총책임자로 그들을 이끌었던 삼사신(三使臣)은 정사, 부사, 종사관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에서 삼사신이 품계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복을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의 역사적 고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삼사신의 품계에 맞는 18세기의 조복을 고증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연구방법은 조선통신사와 조선시대 조복에 관한 선행연구, 18세기 조복을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차림의 초상화와 18세기 조복 출토유물, 조복 일습의 실제 제작에 참고할 수 있는 전세 유물, 18세기의 조복에 관한 규정과 도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들을 고찰하고, 삼사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50대 남성의 체형에 맞는 조복을 제작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조선시대 실제 삼사신의 품계와 18세기 사행에 맞는 조복을 착용함으로써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의례 재현 행사에 전통복식의 바른 고증과 제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조선통신사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조선통신사 삼사신(三使臣)의 조복에 관한 역사적 고찰

본장에서는 삼사신이 착용하였던 조복을 고찰하기 위하여 18세기에 있었던 4차례의 사행에 참여했던 삼사신의 이름과 품계, 사행 일정에서 착용하였던 복식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박선희, 2011).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삼사신은 여러 종류의 의복을 준비하여 상황과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갖추었는데 부산을 떠나 일본의 첫 관문인 쓰시마 부중에 도착하여 하선할 때 조복을 착용하였으며 천황이 사는 교토에 들어가기 전 실상사(實相寺)에서 조복으로 갈아입고 입성하였다. 또한 사행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명례(傳命禮)와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을 맞이하였을 때에 조복을 착용하고 망궐례(望闕禮)와 망하례(望賀禮) 등을 행하였다(이주영, 2014). 즉 사행 일정동안 가장 의례적이고 중요한 행사에서 조복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자연, 2005). 현재 부산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삼사신이 조선의 국왕에게 국서를 받고 통신사 행렬을 재현함에 있어 조복 차림을 하고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의 메인 행사인 국서 전달식에서도 삼사신이 조복 차림을 하기 때문에 삼사신의 실제 품계와 시대적으로 바르게 고증된 조복을 갖추어 입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일 관계를 기록한 외교 자료집인 『증정교린지』에는 사행의 총책임자인 정사는 문관 당상으로 정3품, 정사를 보좌하는 부책임자인 부사는 문관 당하 정3품, 정사와 부사를 보좌하며 일지를 기록하고 귀국 후 견문 보고를 하는 종사관은 문관 5~6품으로 삼사의 역할과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행에 참여했던 정사는 문관 당상 정3품, 부사는 문관 당하 정3품(기해사행의 부사인 황선만 종3품 당하관), 종사관은 문관 당하 정3품이었다(박선희,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3품 삼사신이 18세기에 착용하였던 조복을 고증하고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실제제작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III. 18세기 조선통신사 삼사신의 정3품 조복 제작을 위한 연구

조복은 조선시대에 문무백관들이 착용하였던 최고의 대례복으로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관(冠), 복(服:의(衣), 상(裳), 폐슬(蔽膝), 중단(中單), 대(帶), 홀(笏), 패옥(佩玉), 수(綬), 말

〈표 1〉 18세기 4차례 사행에 참여했던 삼사신의 일정별 착용 복식

| 일정 | 신묘사행 | | 기해사행 | 무진사행 | | 계미사행 | | | |
|--------------|------------------|------------------|---------------------|----------------------|------------------|-------------------------------|------------------|----------------------|------------------|
| | 정사 | 조태역 통정대부 정3품 당상관 | | 정사 | 홍치중 절충장군 정3품 당상관 | 정사 | 홍계희 통정대부 정3품 당상관 | 정사 | 조엄 절충장군 정3품 당상관 |
| | 부사 | 임수간 통훈대부 정3품 당하관 | | 부사 | 황선 건공장군 종3품 당하관 | 부사 | 남태기 통훈대부 정3품 당하관 | 부사 | 이인배 어모장군 정3품 당하관 |
| 종사관 | 이방언 통훈대부 정3품 당하관 | 종사관 | 이명재 어모장군 정3품 당하관 | 종사관 | 조명재 통훈대부 정3품 당하관 | 종사관 | 김상익 어모장군 정3품 당하관 | | |
| 사행록 | | 복식 | 사행록 | 복식 | 사행록 | 복식 | 사행록 | 복식 | |
| 사행준비 물품지급 | 통문관지 증정교린지 | 정사 | 초록은문대단 1필, 남은문대단 1필 | | | | | | |
| | | 부사 | 초록은문대단 1필, 남은문대단 1필 | | | | | | |
| | | 종사관 | 초록광적 1필, 남광적 1필 | | | | | | |
| 사조 | 공복 혹은 흑단령(상복) | | | | | | | | |
| 발행 | 편복 혹은 청포 | | | | | | | | |
| 동래 및 부산 입성 | 동사일기 | 관대 | 동사록 | 흑단령 | 수사일록 | 흑단령 | 해사일기 | 관복 | |
| | 동사록 | 흑단령 | | | | | 일관기 | 흑단령 | |
| | | | | | | | 승사록 | 공복 | |
| 국내연회 | 동사록 | 공복 | 동사록 | 공복 | 수사일록 | 흑단령 | 일관기 | 흑단령 | |
| | | | 혜유록 | 흑단령 | | | 승사록 | 공복 | |
| | | | | | | | | | |
| 해신제 | 흑단령 | | 혜유록 | 흑단령, 검은사모, 은대(銀帶) | 흑단령 | | 흑단령 | | |
| 승선 | 동사록 | 도의(道衣), 당관(唐冠) | 기록 없음 | | 수사일록 | 당관, 도포/윤건, 학창의 | 일관기 | 도해관복(渡海冠服) | |
| 선상 상입례 | 동사록 | 편복 | 동사록 | 공복 | 봉사일본시문견록 | 장복 | 일본록 | 흑단령 | |
| | | | 혜유록 | 흑단령 | 수사일록 | 흑단령 | 승사록 | 공복 | |
| 쓰시마 부중 하선 | 동사일기 | 조복 | 혜유록 | 관대(冠帶) | 수사일록 | 흑단령 | 일관기 | 공복 | |
| | 동사록 | 공복 | | | | | | | |
| 쓰시마 도주 주관 연회 | 동사일기 | 사연(私宴)에는 평복 착용 | 동사록 | 공연에는 공복/사연에는 편복 | 봉사일본시문견록 | 공연에 홍포, 오모, 홍단령/사연에 도포, 평복 착용 | 해사일기 | 홍단령 | |
| | | 동사록 | | 공연(公宴)에 공복/사연에 평복 착용 | | 혜유록 | 공연에 흑단령/사연에 평복 | 수사일록 | 공연에는 공복(홍단령) |
| | | | | | | | 승사록 | 정사, 부사는 홍단령/종사관은 청단령 | |
| 간파쿠 연향 | 기록 없음 | | 혜유록 | 에도 하마연에 흑단령 착용 | 봉사일본시문견록 | 오사가 속공에 단령 에도 상마연에 평복 | 해사일기 | 홍단령 혹은 공복 | |
| | | | | | 수사일록 | 오사가 속공에서 시복 착용 | 승사록 | 관복 | |
| 교토 입성 | 동사일기 | 공복(홍단령) | 동사록 | 공복 | 봉사일본시문견록 | 포모(袍帽) | 해사일기 | 홍단령 | |
| | 동사록 | 공복 | 혜유록 | 홍단령 | 수사일록 | 홍단령 | 일관기 | 공복 | |
| | | | | | | | 승사록 | 시복 | |
| 에도 입성 | 동사일기 | 공복(흑단령) | 동사록 | 공복 | 봉사일본시문견록 | 오사모, 홍포 | 해사일기 | 홍단령 | |
| | 동사록 | 공복 | 혜유록 | 홍단령 | 수사일록 | 홍단령 | 일관기 | 공복 | |
| | | | | | | | 승사록 | 시복 | |

| 일 정 | 신묘사행 | | 기해사행 | 무진사행 | | 계미사행 | 정사 | | | |
|------------------|-----------|-------------------------------|------|------------------------------|----------|---|------|-------------------------------------|---------|-----|
| | 정사 | 부사 | | 정사 | 부사 | | 정사 | 부사 | 정사 | 부사 |
| | 종사관 | 종사관 | | 종사관 | 종사관 | | 종사관 | 종사관 | 종사관 | 종사관 |
| 사행록 | 복식 | 사행록 | 복식 | 사행록 | 복식 | 사행록 | 복식 | | | |
| 쓰시마 도주 상견례 | 동사록 | 편복 혹은 공복 | 동사록 | 흑단령 | 봉사일본시문견록 | 도주 상견 시 홍포, 사모 | 일관기 | 공복 | | |
| | | | 혜유록 | 흑단령/봉행제관 상견 시 유관(儒冠), 유관(儒冠) | 수사일록 | 봉행제관 상견 시 유의(儒衣), 유관(儒冠) | | | | |
| 사신 접견 | 동사일기 | 교토와 에도의 기록은 없고, 중로문안에서는 공복 착용 | 동사록 | 교토와 에도에서 공복/중로 문안에서 단령 착용 | 봉사일본시문견록 | 교토와 에도에서 공복 착용 | 혜사일기 | 교토에서 공복, 관복/ 중로문안에서 흑단령/ 에도에서 공복 착용 | | |
| | | | | | 수사일록 | 중로문안에서 흑단령/ 에도에서 관복·봉행·목부 접견 시 시복단령(홍단령)/ 에도에서 집정 접견 시 홍단령 착용 | 일관기 | 에도에서 공복 (흑단령) 착용 | | |
| | | | | | 수사일록 | 에도에서 집정 접견 시 홍단령 착용 | 승사록 | 에도에서 흑단령 | | |
| 전명 | 동사일기 | 금관, 홍포, 홀 | 동사록 | 조복 | 봉사일본시문견록 | 금관조복 | 혜사일기 | 금관조복 | | |
| | 동사록 | 공복 | 혜유록 | 금관조복, 옥패, 홀 | 수사일록 | 금관조복, 패우, 홀 | 일관기 | 조복, 관, 홀 | | |
| 회답서 및 예단수령 | 동사록 | 공복 | 동사록 | 공복 | 봉사일본시문견록 | 공복 | 혜사일기 | 공복 | | |
| | | | 혜유록 | 흑단령 | 수사일록 | 홍단령 | 일관기 | 공복 | | |
| | | | 혜유록 | 흑단령 | 수사일록 | 홍단령 | 일관기 | 공복 | | |
| 복명 | 공복 혹은 흑단령 | | | | | | | 일관기 | 시복 | |
| 정조·동지·탄일 망궐례 | | | | | | | | 혜사일기 | 조복(동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襪), 혜(鞋)로 구성되어 있으며 1품에서 9품까지 품계에 따라 착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장정윤, 2003). 이에 본 장에서는 조선통신사와 조복에 관한 선행연구, 18세기의 조복을 확인할 수 있는 조문명(1680-1732)과 이직 삼대(밀창군 이직 (1677-1746), 아들 정간공 이익정(1699-1782), 손자 이성규(1732-1799), 변암 체제공(1720-1799)의 조복처럼 초상화, 조복 출토 유물과 문헌 등을 통해 18세기 정3품의 조복일습을 고찰한 후 제작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50대-60대

남성으로 조복 제작에 필요한 사이즈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의 50-59세 남성의 평균치수를 기준으로 한다(장민정, 2017). 그 이유는 60대 남성 대부분의 항목이 50대 남성에 비해 수치가 작게 나오므로 실제 착용 시 넉넉한 사이즈의 조복 일습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이다. 저고리와 바지, 의, 중단, 상, 후수 등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구성 방법은 구혜자의 침선노트를 참고한다.

| | | | | |
|---|---|---|---|---|
|  |  |  |  |  |
| ① 조문명(출처: 역사 인물 초상화 대사전(p.265) 이강철 외 공저. 2003, 서울: 현암사.) | ② 이직(출처: 초상화의 비밀(p.1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③ 이익정(출처: 초상화의 비밀(p.147)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④ 이성규(출처: 초상화의 비밀(p.149)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⑤ 채제공(출처: 번암 채제공(p.16) 수원화성박물관. 2013,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

〈그림 1〉 18세기 양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초상화

| | | | |
|--|---|---|--|
|  |  |  |  |
| ① 심동신 (1824~?)금관 (출처: 심동신 금관조복. (2018. 10.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http://museum.dankook.ac.kr)) | | | ② 박해웅(1885~?) 양관 (출처: 박해웅 금관조복. (2018. 10. 1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그림 2〉 양관 유물

1. 양관(梁冠)

양관은 조복 차림을 할 때 쓰는 관모(冠帽)로 모체(帽體)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금줄인 양(梁)이 있어 붙여진 명칭으로 관의 머리둘레 부분과 뒷면 전체에 금니를 칠하여 금관(金冠)이라고도 한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태종 16년(1416)에 1품은 5량관, 2품은 4량관, 3품은 3량관, 4·5·6품은 2량관, 7·8·9품관은 1량관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한예전』에서 1품은 7량, 2품은 6량, 3품은 5량, 4품은 4량, 5품은 3량, 6품과 7품은 2량, 8품과 9품이 1량으로 바뀔 때까지 그 제도를 유지하였다. 세종 8년(1426)에 전 품이 각잠(角簪)을 꽂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조오례의』와 동일하며 『경국대전』에서는 각잠에서 목잠(木簪)으로 바뀌었다(최영선, 2004).

〈그림 1〉은 18세기 양관을 확인할 수 있는 초상화로 모두 1품이 쓰는 5량관을 쓰고 있다. 이직삼대(이직(1677~1746)과 그의 아들 이익정(1699~1782), 손자 이성규(1732~1799)와 채제공(1720~1799)은 5량의 줄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 있는 양

관에 비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꽂은 반면 조문명(1680~1732)은 중앙에 3줄, 좌우에 2줄이 배열되어 있는 양관에 길이가 짧은 비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꽂았다. 조문명과 이직 삼대는 관무(冠冑)를 조이는 술이 달린 청색의 끈(纒)을 양 옆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고 채제공은 잠(簪)에 한번 걸여 돌린 후 늘어뜨렸다.

〈그림 2〉는 삼사신의 양관을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유물들이다.

〈그림 3〉은 지난 몇 해 동안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의 조복 착용 사진들이다.

〈그림 3〉에서 정사는 5량관을, 부사와 종사관은 3량관을 쓰고 있으며 관무를 조이는 끈은 붉은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조복의 양관을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조복의 양관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3품에 해당하는 삼사신은 모두 3량관을 쓰며 관무와 병풍처럼 머리 뒤를 높게 감싸는 뒷부분은 화려한 화조문을 투조 장식하여 도금하고 아치형 옥 위에 3줄의 금색 양을 중앙에 나란히 배열한다. 금니(金泥)를 칠한 긴 목잠을



〈그림 3〉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조복 착용 사진(출처: 조선통신사 축제. (2019. 05. 10). 조선통신사 역사관. (<http://www.tongsinsa.com>))



〈그림 4〉 18세기 의를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초상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꿇고 술이 달린 청색의 끈은 관무를 조인 후 잠에 걸어 돌린 후 양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 착용하도록 한다.

2. 의(衣)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관복이 소실되어 문무백관이 육례(六禮) 등의 예를 행할 때 4품 이상은 조복을,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하였던 임시방편의 조치를 『국조속오례의』(1744년)에서 제도로 규정함에 따라 18세기에도 이를 준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박선희, 2011). 그러나 삼사신은 모두 3품 이상이고 조복은 삼사신만 착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흑단령에 관한 고찰을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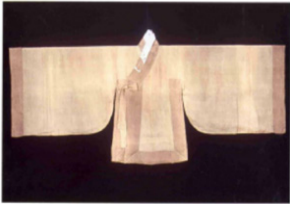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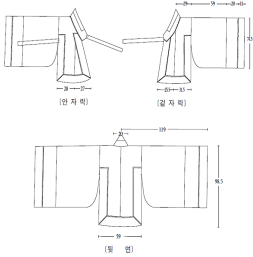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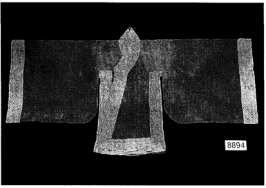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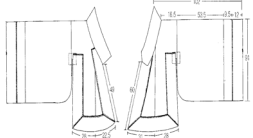
의는 조복의 가장 상의인 포(袍)로 『세종실록

오례의』와 『대한예전』에서는 적라의(赤羅衣), 『경국대전』에서는 적초의(赤綃衣)로 규정하고 있다(장정운, 2003).

〈그림 4〉의 초상화를 통해 18세기 조복의 의(衣)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붉은색 몸판과 흑색 선단 사이에 백색의 가는 선을 끼우고 상침 장식을 했으며 깃은 이익정의 의만 동그레깃이고 나머지는 모두 목판당코깃이다.

〈표 2〉는 이직과 이익정 묘 출토품인 조복 의(衣)로 이직의 의(衣) 소재는 겉감이 은조사(銀條紗), 안감이 얇은 세주(細紬)로 겹으로 되어 있고, 가선은 삼죽 향라를 썼으며 백색의 가는 선을 둘렀다. 겉깃은 목판당코깃, 안깃은 목판깃, 겨드랑이 부분의 가선은 일자형이다. 앞깃과 뒷깃의 진동 아랫점에서 조금 올라간 지점에 대(帶) 고리를 달았고, 진동 아래에는 1cm 길이로 사뜨기를 하

〈표 2〉 이직과 이익정 묘 출토 의

| 유물 사진 | 도식화 | |
|---|---|--|
|  |  | <p>뒷길이 98.5cm</p> <p>폼(B/4) 29cm</p> <p>화장 119cm</p> <p>진동 25cm</p> <p>고대 20cm</p> <p>소매너비 74.5cm</p> <p>가선 너비 11~12cm</p> |
| <p>이직 묘 출토 의(출처: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韓國服飾 22, p.146-147.)</p> | | |
|  |  | <p>화장 102cm</p> <p>소매너비 91cm</p> <p>가선 너비 12cm</p> |
| <p>이익정 묘 출토 의(출처: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1699~1782년) 유물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韓國服飾 19, p.139.)</p> | | |

였다(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이익정의 의(衣)는 홉으로 몸판, 가선, 겨드랑이 바대 모두 삼죽항라를 소재로 하였고, 가는 선은 주(紬)를 썼다. 겨드랑이 부분의 가선은 일자형이고 수구 끝은 중심에서 2.8cm 너비만큼 사뜨기를 하였다. 겨드랑이 밑에 너비 1.5cm, 길이 6cm의 대(帶) 고리를 달았다(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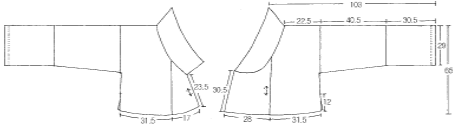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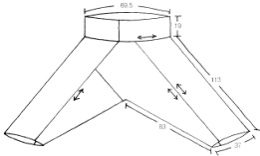
이상에서 조복의 의(衣)를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조복의 의(衣)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소재는 홉으로 몸판을 붉은색 삼죽항라를 사용하며, 가선은 흑색의 삼죽항라를 사용한다. 의의 총길이는 〈그림 4〉의 이직, 이익정 초상화처럼 무릎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50대 남성의 목뒤무릎오금 평균치수는 1015mm, 구혜자의 침선노트(Ⅲ)에서는 적초의 길이를 105cm로, 장정운(2003)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적초의 유물들의 길이가 100cm 전후이므로 현대인의 체격이 18세기에 비하여 커졌음을 고려하여 위의 출토품 의(衣)보다 긴

105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의는 저고리와 중단 위에 착용하는 외의(外衣)이므로 폼을 넉넉하게 해야 한다.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가슴둘레가 974mm인데 남성 기본저고리 제작 시 폼을 B/4+3cm로 계산하면(구혜자, 2001) 273.5mm가 되므로 저고리의 폼은 28cm로, 저고리 위에 입는 두루마기나 포 제작 시 저고리 폼에 2cm를 더하여(구혜자, 2001) 나온 293.5mm를 중단의 폼 30cm로 하고, 여기에 다시 2cm를 더한 313.5mm는 저고리와 중단까지 겹쳐 입는 것을 감안하여 의의 폼을 32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화장은 저고리보다 중단을 길게, 의는 중단보다 길게 해야 하므로,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어깨사이길이(417mm)/2 + 팔길이(571mm)가 779.5mm이므로 저고리의 화장은 78cm로 하고, 여기에 손직선 길이 180mm를 더한 959.5mm를 화장으로 하면 초상화에서처럼 손등을 덮을 수 있으므로 의(衣)의 화장은 96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중단의 화장은 저고리와 의의 중

〈표 3〉 이익정 묘 출토 적삼과 바지

| 출토 사진 | 도식화 |
|--|--|
|  |  |
| <p>이익정 묘 출토 적삼(출처: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1699~1782년) 유물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韓國服飾 19. p.121.)</p> | |
|  |  |
| <p>이익정 묘 출토 바지(출처: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1699~1782년) 유물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韓國服飾 19. p.122.)</p> | |

간인 87cm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동은 저고리 제작 시 B/4 + 2cm로 계산하여 (구혜자, 2001) 263.5mm가 되므로 저고리의 진동은 26cm, 중단의 진동은 2cm를 더한 28cm, 의(衣)의 진동은 다시 2cm를 더한 30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고대는 저고리 제작 시 B/10로 계산하여(구혜자, 2001) 97.4mm가 되므로 저고리의 고대는 10cm로, 중단의 고대는 1cm를 더한(구혜자, 2001) 11cm로, 의(衣)의 고대는 다시 여기에 1cm를 더한 12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소매너비는 이직 묘 출토품 의(衣)의 뒷길이(98.5cm) : 소매너비(74.5cm)의 비율이 1 : 0.75이며, 이익정 묘 출토품 의(衣)의 소매너비는 91cm인데 선행연구나 출토보고서에서도 총길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최영선(2004)의 연구를 통해 15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의 전세유물 7벌의 제복(祭服) 의(衣)의 총길이 : 소매너비가 1 : 0.56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4〉의 초상화에서는 의(衣)의 도련보다도 소매통이 아래로 내려오는 광수(廣袖)로 확인되므로 이직과 이익정 묘 출토품 의(衣)의 소매 너비를 감안하여 80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소매는 진동에서 배래가 수직으로 내려와 끝부분을 약간 둥글려 다시 직선으로 뺀는 두리소매 형태로 한다.

깃은 목판당코깃으로 하는데 〈그림 3〉에서의

조복의 의(衣)는 모두 깃 길이가 지나치게 짧고 고름도 목판 중앙에서 매게 되어 있어 보는 이에게 시각적인 답답함을 줄 뿐 아니라 실제 착용 시에도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상화에서처럼 깃 길이를 길게 하고 고름을 옆구리가 가까이에서 맬 수 있도록 목판과 같은 색으로 달아주고 흰 등정을 단다.

가선너비는 유물대로 12cm로 하고, 옆트임과 깃, 수구, 도련에 검은 선단을 대는데 겨드랑이 부분의 가선은 진동 아랫점보다 위로 올라온 지점에서 시작하여 일자형으로 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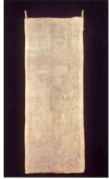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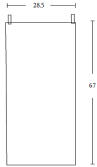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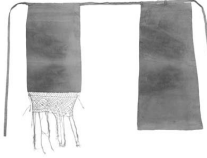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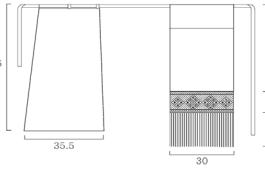
깃의 형태는 옆선은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옆이 약간 넓어지도록 한다. 진동 아랫점 겨드랑이 밑에 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를 달아주고 붉은색 목판과 흑색 선단 사이에 백색의 가는 선을 끼우고 상침 장식을 한다.

3. 저고리·바지

조복에 입는 저고리와 바지의 경우 초상화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이익정 묘 출토품 적삼과 바지를 참고하도록 한다. 〈표 3〉의 적삼은 삼팔주 홀으로 되어 있으며 화장 72.5cm, 한삼 30.5cm로 총화장이 103cm이며 수구 29cm, 총길이 65cm이다.

〈표 3〉의 바지 역시 삼팔주 홀으로 되어 있으며

〈표 4〉 이직과 정간공 이직정 묘 출토 의

| 초상화 폐슬 | 출토 폐슬 사진 | 도식화 | |
|---|---|---|---|
|  |  |  | 가로 28,5cm 세로 67cm 고리 너비 1cm |
| 이직 폐슬 (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이직 묘 출토 의(출처: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韓國服飾 22, p.149.) | | |
|  |  |  | 세로 65cm 가로 윗너비 28cm 아래너비 35.5cm 상단 고리 2.2cm×1.3cm 긴 끈 180cm×1.2cm |
| 체제공 폐슬 (출처: 번암 체제공 (p.16) 수원화성박물관, 2013, 경기도 : 수원화성박물관.) | 신경유 묘 출토 폐슬(출처: “경기도 광주 출토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 복식고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韓國服飾 26. p.191.) | | |

마루폭 길이 113cm, 큰사폭의 배래 83cm, 부리통 37cm, 허리둘레/2가 69.5cm, 허리너비 19cm이다.

이상에서 저고리와 바지를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저고리와 바지 제작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소재는 백색 명주로 하고, 앞에서 의(衣)의 치수를 산출하며 언급했듯이 저고리의 총길이는 60~65cm, 품 28cm, 화장 78cm, 진동 26cm, 고대 10cm로 한다. 의(衣)의 화장이 96cm임을 감안하여 위 도식의 30.5cm 보다 더 여유있는 길이의 한삼을 달아 주도록 한다. 바지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다리가쪽길이(1015mm) - 가쪽복사 높이(71mm)인 944mm와 엉덩이둘레 938mm, 허리둘레 869mm를 참고하여 백색의 명주에 안감을 넣어 겹으로 제작한다.

4. 폐슬(蔽膝)

폐슬은 무릎(膝)을 가린다(蔽)하여 붙여진 명칭으

로 『세종실록 오례의』, 『국조오례의』, 『대한예전』에는 적라폐슬(赤羅蔽膝)로, 『경국대전』에는 적초폐슬(赤綃蔽膝)로 의와 동일한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였다. 본래 직사각형의 폐슬을 혁대에 걸어 착용하였는데 17세기 이후로는 끈에 꿰어 허리에 돌렸으며 고종대에 이르러서는 의(衣)의 가슴 부분에 달아 폐흉(蔽胸)이라고 하였는데(국립고궁박물관, 2013), 〈그림 3〉에서는 모두 폐흉을 착용하고 있어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하고 있는 조복은 19~20세기의 국말 조복임을 알 수 있다.

〈표 4〉의 이직 초상화의 폐슬과 이직 묘 출토 품 폐슬은 형태가 유사한데 위아래 너비가 똑같은 직사각형으로, 출토 폐슬은 겹과 안 모두 은조사로 아래쪽이 골로 되어 있으며 상단의 고리 2개는 삼죽 향라이다. 폐슬 몸판 위아래에 선(紵, 純)은 두르지 않았고 폐슬을 대대 위에 돌렸다(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체제공 초상화의 폐슬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로 상단 가장자리에 부착한 2개의 작은 고리에 끈

〈표 5〉 18세기 폐슬을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초상화와 출토 폐슬

| 조복 초상화 | 유물 | 도식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td>전상 너비</td><td>44.5cm</td></tr> <tr><td>후상 너비</td><td>44.5cm</td></tr> <tr><td>길이</td><td>89cm</td></tr> <tr><td>선단 너비</td><td>11cm</td></tr> <tr><td>끈 길이</td><td>79cm,</td></tr> </table> | 전상 너비 | 44.5cm | 후상 너비 | 44.5cm | 길이 | 89cm | 선단 너비 | 11cm | 끈 길이 | 79cm, | | | | | | | | | | | | |
| 전상 너비 | 44.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상 너비 | 44.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길이 | 89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단 너비 | 11cm | | | | | | | | | | | | | | | | | | | | | | | | |
| 끈 길이 | 79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직 상(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이직 묘 출토 의(출처: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韓國服飾 22, p.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td>전상 너비</td><td>36cm</td></tr> <tr><td>후상 너비</td><td>44cm</td></tr> <tr><td>길이</td><td>84cm</td></tr> <tr><td>선단 너비</td><td>12cm</td></tr> <tr><td>주름너비</td><td>약 1.6cm</td></tr> </table> | 전상 너비 | 36cm | 후상 너비 | 44cm | 길이 | 84cm | 선단 너비 | 12cm | 주름너비 | 약 1.6cm | | | | | | | | | | | | |
| 전상 너비 | 36cm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상 너비 | 44cm | | | | | | | | | | | | | | | | | | | | | | | | |
| 길이 | 84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단 너비 | 12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름너비 | 약 1.6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익정 상(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7)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이익정 묘 출토 상(출처: “상암동 출토 전주이氏 익정(1699~1782년) 유물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韓國服飾 19, p.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td rowspan="2">전상</td><td>윗너비</td><td>55cm</td></tr> <tr><td>아래 너비</td><td>149cm</td></tr> <tr><td rowspan="2">후상</td><td>윗너비</td><td>65cm</td></tr> <tr><td>아래너비</td><td>198cm</td></tr> <tr><td>길이</td><td colspan="2">96.5cm</td></tr> <tr><td>선단 너비</td><td colspan="2">10cm</td></tr> <tr><td>주름너비</td><td colspan="2">약 3.5cm</td></tr> <tr><td>허리 말기 너비</td><td colspan="2">5cm</td></tr> </table> | 전상 | 윗너비 | 55cm | 아래 너비 | 149cm | 후상 | 윗너비 | 65cm | 아래너비 | 198cm | 길이 | 96.5cm | | 선단 너비 | 10cm | | 주름너비 | 약 3.5cm | | 허리 말기 너비 | 5cm | |
| 전상 | 윗너비 | 5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 너비 | 149cm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상 | 윗너비 | 6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너비 | 198cm | | | | | | | | | | | | | | | | | | | | | | | |
| 길이 | 96.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단 너비 | 10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름너비 | 약 3.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리 말기 너비 | 5cm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제공 상(출처: 번암 체제공 (p.16) 수원화성박물관, 2013, 경기도 : 수원화성박물관.) | 신경유 묘 출토 상(출처: “경기도 광주 출토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 복식고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韓國服飾 26, p.190.)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끼워 대대 위쪽으로 돌려 착용하였다. 이는 신경유(1581~1633) 묘 출토품 폐슬과 동일한 형태로 이 출토 폐슬은 걸감은 무문능, 안감은 주를 사용하여 겹으로 되어 있으며 폐슬 고리에 끼운 끈을 후상(後綬) 위쪽의 고리에 끼워 함께 착용하였다(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이상에서 조복의 폐슬을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조복의 폐슬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폐슬의 소재는 의(衣)와 같은 붉은색 삼죽향라로 아래를 골로 하여 위아래 너비가 같은 직사각형이 되도록 한다. 너비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허

리너비가 290mm이므로 출토 유물과 같은 28cm로 하고, 길이는 허리높이(1010mm) - 무릎높이(432mm)에 대대 너비 10cm를 더하면 678mm이므로 이직 묘 출토품 폐슬과 유사하게 68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폐슬 상단에 고리 2개를 달아 이 고리 사이로 긴 끈을 끼워 허리에 돌려 착용한다.

5. 상(裳)

상(裳)은 조복 차림을 할 때 중단(中單) 위에 두르는 의례용 치마로 『국조오례의 서례』에 앞 3폭, 뒤 4폭으로 분리되며 양쪽 끝을 각각 1촌씩 꿰매

어 삭폭(削幅)이라 하고 옆에 댄 검은 선은 벽(緋), 아래쪽에 댄 검은 선은 석(緋)이라고 하며 선의 연결부분에 백색의 가는 선을 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영숙, 1998).

조선시대 조복의 상(裳) 형태는 3단계의 변화를 보이는데 첫 번째가 위쪽만 주름을 잡아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형태로 신경유, 김덕원(1634~1704)의 유물에서 확인된다. 둘째는 일자형으로 가선을 두른 후 위에서 아래까지 주름을 잡는 형태로 전(傳) 화산군 이연(1647~1702), 이직, 이익정, 안동 김씨 묘(19C 말~20C 초)의 출토 유물에서 확인된다. 세 번째는 주름을 잡고 눌러서 고정을 한 다음 가선을 댄 형태로 심동신(1824~?) 유물에서 확인된다(최연우, 2015). <표 5>는 18세기 조복의 폐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상화, 출토유물과 도식화이다.

이직과 이익정 초상화의 상(裳)은 두 번째 형태에 속하는데 두 출토품 상(裳) 역시 가선 부분까지 주름이 잡혀 있다. 이직 묘 출토품 상(裳)은 홀으로 소재는 은조사이며 전상과 후상이 10cm 떨어져 허리 말기에 연결되어 있고 말기 양쪽에 끈이 달려 있다. 이익정 묘 출토품 상(裳)은 홀으로 소재는 삼죽항라이고, 전상과 후상이 11cm 떨어져 허리말기에 연결되어 있다. 체제공 초상화의 상(裳)은 첫번째 형태에 속하는데 신경유 묘 출토품 상(裳)과 동일한 형태이다. 이 출토품 상(裳)은 홀으로 소재는 무문능이며 선단은 무문단이다. 전상과 후상이 분리되어 있는데 6cm가 겹치게 말기에 연결되어 있고 말기 양쪽 끝에 긴 끈이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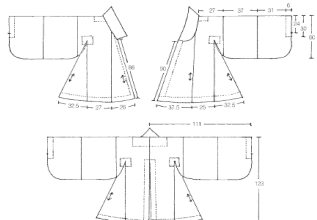
이상에서 조복의 상(裳)을 고증한 결과, 조선통

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조복의 상(裳) 제작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소재는 의(衣)와 같은 붉은색 삼죽항라로 하고 형태는 이직과 이익정의 초상화와 출토품 상(裳)과 같이 제작한다. 전상 너비 36cm(폭 110cm), 후상 너비 44cm(폭 136cm), 길이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허리높이(1010mm)-가쪽복사높이(71mm)가 939mm이므로 허리말기 너비 5cm를 포함하여 94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상의 아랫단이 중단보다 길게 아래로 내려와 <그림 3>과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자리에 12cm의 흑색 삼죽항라 선단을 댄 후 가선 부분까지 1.6cm의 주름을 잡아주고 몸판과 선단 사이에 백색의 가는 선을 끼우고 상침 장식한다. 백색 명주로 만든 너비 5cm의 허리 말기에 전상과 후상이 10cm정도 떨어지게 연결하고 허리에 둘러서 왼쪽으로 여며 입을 수 있도록(장정운, 2003) 말기 양쪽으로 긴 끈을 달아준다.

6. 중단(中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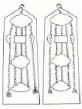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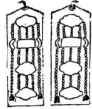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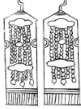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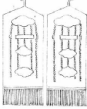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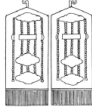

중단은 의(衣) 속에 받쳐 입는 홀옷(單衣)으로 겹옷과 속옷 사이에 입는 옷(中衣)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조복과 제복의 백초중단이 제도상 통용되었으나 정조 13년(1789)에 원임 직각 윤행임이 조복 안에 백삼(白衫)을 입지 않고 창의를 입는 것을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 하였고, 정조 20년(1796)에 원임 직제학 서용보가 근래 조정 선비들이 조복 안에 중단을 입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이를 회복하라는 임금의 명을 『홍재전서』(1799년)에 기록하고 있다(박

<표 6> 정간공 이익정 묘 출토 창의

| 유물 사진 | 도식화 |
|---|--|
|  |  |

이익정 묘 출토 창의 (출처: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1699~1782년) 유물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韓國服飾 19, p.142.)

〈표 7〉 조선시대 패옥 도식

| 세종실록 오례의 | 국조오례의 서례 | 태학지 | 춘관통고 | 경모궁의궤 | 대한예전 |
|---|---|---|---|--|---|
|  |  |  |  |  |  |

선희, 2011). 정조 17년(1793)에는 공복 안에는 청색 창의를 착용하고 집에서는 흰색 창의를 착용하는 습속을 고쳐 모두 청색 창의만 착용하도록 한 임금의 명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정운, 2003) 18세기에는 조복의 내의(內衣)로 청색 중단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전하는 중단 유물들과 초상화에서도 모두 청색 중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이익정 묘 출토품인 명주 홀 창의로 조복의 중단으로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단 제작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에서 조복의 중단을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조복의 중단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소재는 청색 삼죽항라 홀로 제작하는데 총길이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목뒤무릎오금(1015mm) + 무릎높이(432mm)×2/3가 1303mm여서 130cm로 하면 〈그림 4〉의 초상화와 같은 중단의 길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에서 의(衣)의 치수를 산출하며 언급했듯이 품 30cm, 화장 87cm, 진동 28cm, 고대 11cm로 한다. 〈표 6〉의 창의의 총길이(123cm) : 소매너비(60cm)가 1 : 0.48이며, 함께 출토된 다른 창의는 총길이(132cm) : 소매너비(58cm)로 1 : 0.47의 비율이다. 장정운(2003)의 연구에서 1800년대 조복의 중단 유물 9벌의 총길이 : 소매너비가 1 : 0.4임을 통해 이전 시기인 18세기 중단의 소매너비가 더 넓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총길이 103cm인 중단의 소매너비는 〈표 6〉의 출토품과 유사하게 1 : 0.48의 비율에 해당하는 63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그림 3〉의 첫 번째 사진처럼 중단의 소매가 의(衣)의 소매보다 길어서 의(衣)의 수구 밖으로 빠져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흑색 선단은 의(衣)와 동일하게 흑색 삼죽항라로 너비 12cm로 하고, 초상화와 같이 도련과 옆트임에는 대지 않고 깃과 수구에만 대준다. 중

단의 소매나 깃 형태는 의(衣)에 맞추고 몸판과 같은 색의 고름을 달고, 흰 동정을 단다.

7. 패옥(佩玉)

패는 여러 형태의 얇은 옥을 연결하여 품대의 양쪽 옆구리에 걸쳐 패옥 바탕(綏) 위에 드리우는 장식품으로(김영숙, 1998), 『세종실록 오례의』에는 1·2 품은 옥(玉), 3품 이하는 약옥(藥玉)으로, 『경국대전』에는 3품 이상은 번청옥(燐靑玉), 4품 이하는 번백옥(燐白玉)으로 규정하였는데 〈표 7〉에서 조선시대 패옥의 도식을 확인할 수 있다(최영선, 2004).

〈표 7〉의 도식을 통해 패옥 최상단의 형(珩)과 여기에 구슬을 꿰 3개의 줄에 달린 우(瑀), 거(瑸), 충아(衝牙)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형의 양쪽 끝에 연결된 2개의 구슬 줄에 달린 황(璜), 거(瑸), 우(瑀), 옥화(玉花), 옥적(玉適) 등의 모양에는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패옥 바탕인 소수는 아래 부분에 술이 없는 형태에서 술이 있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예전』에서는 소수의 그림이 없으나 고종의 패옥 유물과 영왕비 적의 패옥 유물에서 술을 늘어뜨린 소수를 확인할 수 있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그림 5〉는 이직, 이익정, 체제공 초상화의 패옥으로 술이 없는 청색의 소수 위에 길게 늘어뜨린 패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6〉은 패옥을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정온(1569~1641), 정원용(1783~1873년), 심동신(1824~?)의 패옥 유물들이다. 현재 조선 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은 패대없이 패옥만 착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청색이 아닌 백색 패옥을 드리우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조복의 패옥을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조복의 패옥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초상화들의 패옥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국조오례의 서

| | | | | | |
|---|---|---|--|--|--|
|  |  |  |  |  |  |
| ① 이직(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립중앙박물관.) | ② 이직정(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7)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립중앙박물관.) | ③ 채제공(출처: 번암 채제공 (p.16) 수원화성박물관. 2013,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 ① 정은 패옥 (출처: 정은가의 유품, (2018. 10. 2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② 정원용 패옥 (출처: 한국복식 2천년 (p.63). 국립민속박물관. 1995,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③ 심동신 패옥 (출처: 심동신 금관조복, (2018. 10.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http://museum.dankook.ac.kr)) |

〈그림 5〉 18세기 패옥을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초상화

〈그림 6〉 패옥 유물

| | | |
|---|--|--|
|  |  |  |
| ① 정원용 후수 (출처: 한국복식 2천년 (p.70) 국립민속박물관. 1995,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② 심동신 후수 (출처: 심동신 금관조복, (2018. 10.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http://museum.dankook.ac.kr)) | ③ 박해옹(1885~?) 후수 (출처: 박해옹 금관조복, (2018. 10. 1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그림 7〉 후수 유물

례의 도식을 참고하여 제작하는데 색상은 푸른빛이 나는 변청옥이며, 형태는 무늬가 없는 민옥(珉玉) 형태이고, 착용방법은 술이 없는 청색의 패대 맨 윗부분에 도금된 금속 고리(鉤)를 부착하여 대에 걸어 착용하도록 한다.

8. 수(綬)

수는 조복 차림을 할 때 허리에 뒤쪽으로 드리우는 장식물로 품계에 따라 문양과 환(環)을 달리 하여 후수(後綬)라고도 한다(장정운, 2003).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 제도는 고종대까지 동일한데 1·2품은 황·녹·적·자색의 4색 실로 운학화금(雲鶴花錦)을 짜고 수환(綬環)으로는 두 개의 금고리, 3품은 황·녹·적·자색 실로 반조화금(盤鵬花錦)을 짜고 두 개의 은고리, 4품은 황·녹·적색의 3색 실로 연작화금(練鵲花錦)을 짜고 두 개의 은고리, 5·6품은 황·녹·적색의 3색 실로 연작화금을 짜고, 두 개의 동고리, 7·8·9품은 황·녹색의 2색 실로 계직화금(鷄織花錦)을 짜고 두 개의 동고리를 달고 후수 몸판 아래쪽에 청사망(靑絲網)을 연결하여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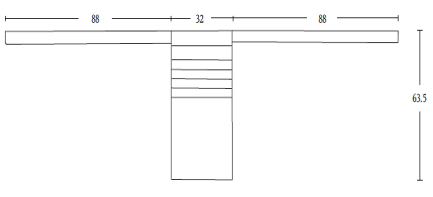
(이영주, 이상은, 2014).

현전하는 유물들은 위 규정과는 달리 모두 운학(雲鶴)이 수놓아져 있는데 2쌍인 경우는 황·백, 3쌍인 경우는 청·황·백, 4쌍인 경우는 청·황·청·백, 5쌍인 경우는 황·청·황·청·백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물의 바탕천은 모두 홍색이고 재질은 거의 단(緞)이며 조선후기에는 전(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최영선, 2004). 정약용(1762~1836)의 『여유당전서』의 조복 갖추에 후수는 여러 채색으로 운학 한 쌍을 자수한다고 되어 있어 운학의 수나 색상으로 품계를 구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박선희, 2011).

〈그림 7〉의 후수 유물들을 살펴보면 제일 위쪽에 구름무늬, 끈자를 넣은 타원형 고리, 운학(2단 2열, 혹은 3단 2열, 4단 2열 등으로 구획하여 각 단마다 색상을 달리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 끈자를 넣은 타원형 고리, 연화문(蓮花文) 순으로 수가 놓아져 있으며 몸판 아래에 청사망을 맺었다. 후기로 가면서 후수의 크기가 더 커지고 화려해졌으며 국말에는 ㄱ 형태의 대대에 후수를 고정시켰다(최영선, 2004).

〈표 8〉은 이직 묘 출토품 후수이다. 이 후수는

〈표 8〉 이직 묘 출토 후수

| 유물 사진 | | 도식화 | |
|---|---|--|---------------------------------------|
|  |  |  | 가로 32cm, 세로 56.8cm, 말기 너비 6.5cm |
| | | | 끈 너비 5cm 길이 88cm |
| 이직 묘 출토 후수(출처: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韓國服飾 22, p.151.) | | | |

| | | |
|---|---|---|
|  |  |  |
| ① 이직(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립중앙박물관.) | ② 이익정(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7)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③ 체재공(출처: 변암 체재공 (p.16) 수원화성박물관. 2013,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

〈그림 8〉 18세기 대대와 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초상화

겹으로 소재는 공단이며 두 쌍의 운학이 위 아래로 수놓아져 있다.

이상에서 조복의 후수를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조복의 후수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후수는 홍색의 공단을 겹으로 하며 후수와 대대를 분리하여 따로 제작한다. 자수 장식은 구름, 끈자를 넣은 타원, 위 아래 2단의 황·백색 운학 2쌍, 끈자를 넣은 타원, 연화문 순으로 수를 놓는다. 정3품인 삼사신은 수환으로 은고리 2개를 달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유물에 금환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운학의 경우와 같이 수환의 종류 역시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금환을 주로 사용했으므로 삼사신의 후수 역시 위쪽의 타원형 고리 부근에 금고리 2개를 달도록 한다. 후수의 길이는 상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였던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50대 남성)의 허리높이(1010mm)-가쪽복사높이(71mm)에서 나온 94cm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흰 명주로 만든 허리말기는 너비 10cm, 후수 몸판 길이는 60cm, 청사망은 청색의 견사로 짠 부분은 8cm, 그 아래로 늘어뜨리는 술 부분은 16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너비는 50대 남성의 허리너비가 290mm이므로

28cm정도로 하고 배 앞쪽에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말기 양쪽으로 80cm 정도의 긴 끈을 달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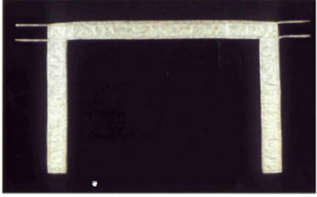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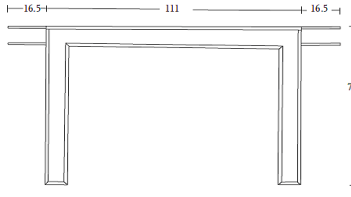
9. 대대(大帶)

대대는 조복 차림을 할 때 허리에 두르는 큰 비단 띠(大帶)로 요(繞)와 아래로 늘어뜨리는 신(紳) 부분으로 구성되며 가장 자리에 선(緝)을 두르고 요 부분의 양 옆에 달린 끈을 배 앞 쪽으로 묶어서 착용한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세종실록 오례의』에는 적백대대(赤白大帶), 『국조오례의』와 『대한예전』에는 적색과 백색의 대(大帶) 以赤白羅合以縫之로 규정하여 제도상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이영주, 이상은, 2014).

〈그림 8〉의 이직, 이익정 초상화에서는 백색에 녹색 선을 두른 대대를, 체재공 초상화에서는 백색에 푸른선을 두른 대대를 확인할 수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조대(條帶)인데 『여유당전서』에서 조복의 갓춤 중 채색실로 짠 조대(組以采絲)가 포함되어 있고, 『홍재전서』에서 정조 13년(1789)에 유행임이 조복을 입을 때 대대와 품대 위에 조대를

〈표 9〉 이직 묘 출토 대대

| 유물 사진 | 도식화 | | |
|---|---|-----------|-------|
|  |  | 가 111.5cm | |
| | | 78cm | |
| | | 9.5cm | |
| | | 가 | 1cm |
| | | | 9.5cm |

(: “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 2004, 韓國服飾 22, p.148.)



〈그림 9〉 삼은대

(출처: 삼은대. (2018. 10. 3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http://museum.dankook.ac.kr>))



〈그림 10〉 유수(柳綬, 1678~?)의 초상화

(출처: 유수 초상. (2018. 10. 1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한 기록과 『경모궁의궤』(1783)의 종친문무배향관복도설의 조복 일습에도 오색사로 직성한 조대(條帶以五色絲織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에는 조대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선희, 2011).

〈표 9〉는 이직 묘 출토품 대대로 소재는 걸감이 석류문단(桃榴紋緞), 안감은 여지불수단(荔枝佛手緞)의 겹으로 되어 있으며 대대 상단의 양 끝에 얇고 가는 비단 끈 두 줄이 달려있다. 현전하는 국말 유물 대부분은 대대와 후수가 붙어 있고 대대의 색상이 규정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데(장정운, 2003) 〈그림 3〉의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은 모두 대대에 후수가 부착이 되어 있는 〈그림 7〉과 같은 형태의 대대를 두르고 있다.

이상에서 조복의 후수를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대대의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삼사신의 대대는 후수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데 허리에 들렀을 때 너비 10cm의 신이 〈그림 4〉와 같이 배 앞쪽에서 정강이 가운데 위치까지 내려오도록 한다.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허리높이

(1010mm) - 무릎높이(432mm)×1/3이 866mm이므로 신의 길이는 요(繞) 너비 10cm를 포함하여 총 길이 87cm로 하고, 요(繞)의 길이는 허리둘레 869mm에 맞게 87cm 전후로 하는데 요(繞) 부분의 양쪽 끝에 가늘고 짧은 끈을 달아 배 앞쪽에서 묶어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요(繞) 부분과 아래로 늘어뜨리는 신(紳) 부분을 분리하여 재단한 후 붙이는데 초상화와 같이 백색의 견에 1cm의 녹색 가선을 두른다. 초상화에서처럼 대대 위에 패슬을 두르고 그 위에 채색실을 엮어 짠 얇고 좁은 오색의 조대를 두르도록 한다.

10. 품대(品帶)

품대는 허리에 띠는 대로 품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착용자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 색 또는 재료 등을 구분하여 하였다. 띠의 바닥인 대정(帶鞆) 위에 띠돈으로 장식을 하는데, 『국조오례의』에는 1·2품은 금, 3·4품은 은, 5품 이하는 동으로, 『경국대전』에는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삼금(鍍金), 종2품은 소금(素金), 정3품은 삼은(鍍銀), 종3품은 소은(素銀), 4품은 소은(素銀), 5·6품



① 조문명 (출처: 역사 인물 초상화 대사전(p.265) 이강철 외 공저. 2003, 서울: 현암사.)
 ② 이익(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③ 이익정(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7)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④ 이성규(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9)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⑤ 채제공(출처: 번암 채제공 (p.16) 수원화성박물관. 2013,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그림 12> 정원용 홀
 (출처: 정원용 유품. (2018. 10. 30).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그림 11> 18세기 홀을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초상화

은 흑각(黑角), 7·8·9품은 흑각(黑角)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그림 9>는 정3품 삼은대를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유물이며 <그림 10>은 18세기의 삼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수(柳綏, 1678~?)의 초상화이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삼사신은 홍색, 자주색, 청색 등의 여러 색상에, 형태도 원형, 방형, 심지어는 벨트식의 폼대까지 임의로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조복의 폼대를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착용할 조복의 폼대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폼대는 형태는 <그림 9>와 같은 원형으로 하고 띠바탕은 청정(靑鞞)으로 하며 그 위에 가로 방향의 5줄의 금획을 두르는데 가운데에 3줄을 그리고 상하 가장자리에 1줄씩 그린다. 장식은 띠 바탕에 화조문(花鳥紋) 등을 새긴 20개의 띠돈을 부착하는데 앞 중앙에 삼태(三台), 삼태의 좌우에는 남두육성(南斗六星)을 부착하고 양쪽 옆의 좌보(左輔)와 우필(右弼), 타미(撻尾), 보필과 타미 사이에 1쌍의 화형(花形)의 금정(金釘), 뒤쪽에 방형의 북두칠성(北斗七星)을 부착한다(이은주, 2012). 정3품인 삼사신은 삼은대를 착용해야 하므로 조각한 띠돈에 은테를 둘러준다. 띠 너비는 5cm, 길이는 120cm 정도로 하고 의(衣)의 대대 고리에 끼워 앞가슴에 오도록 하고 뒤는 허리에 내려오도록 띈다.

11. 홀(笏)

홀(笏)은 조복차림을 하고 손에 드는 작은 수판(手板)으로 『세종실록 오례의』에 4품 이상은 상홀

(象笏), 5품 이하는 괴목(槐木)으로 제작한 목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의례화되어 국말까지 변함없이 제복과 통용하여 사용하였다(김영숙, 1998).

<그림 11>에서는 18세기 조복용 상아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2>는 홀을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유물이다.

이상에서 조복의 홀(笏)을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조복 홀(笏)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재료는 상아로 하고 <그림 3>에서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이 들고 있는 홀은 위쪽이 둥글고 초상화와 비교하였을 때 길이가 다소 짧은 편이므로 길이는 33cm, 아래 너비 5cm, 윗너비 3.5cm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 장방형으로 하되 약간 굽은 형태가 되도록 한다. 손으로 잡는 밑부분은 비단으로 싸준다.








12. 말(襪)

말(襪)은 조복 차림을 할 때 신는 버선으로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서례』,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전 품 모두 백포말(白布襪)을 신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장정운, 2003).

<표 10>은 말(襪)의 도식으로 『국조오례의 서례』와 『태학지』에는 회목을 절개하고 양옆에 끈을 한 개씩 부착, 『경모궁의궤』와 『춘관통고』에는 회목을 절개하고 끈을 부리 뒤쪽에 부착, 『세종실록 오례의』에는 회목을 절개하지 않고 끈도 달지 않았다(최영선, 2004).

이상에서 조복의 말(襪)을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조복 말(襪) 제작을 위한 제

〈표 10〉 말의 도식

| | 세종실록 오례의 | 국조오례의 서례 | 경모궁의례 | | 태학지 | 춘관통고 |
|------|--|---|---|--|--|---|
| | | | 제복 | 조복 | | |
| 말(襪) |  |  |  | |  |  |
| |  | | |  | | |
| | ① 『국조속오례의보 서례』 권2, 가례·전하시사복도설의 흑화 (출처: 화(靴), (2018. 12. 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 | ② 흑화 유물(출처: “단종 제향 복원을 위한 재관 복식 고증” 이은주, 2012, 服飾, 62(8), p.129.) | | |

〈그림 13〉 18세기 화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식과 유물

| | | |
|---|---|--|
|  |  |  |
| ① 이직(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② 이익정(출처: 초상화의 비밀 (p.147) 국립중앙박물관. 2011,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⑤ 채제공(출처: 범암 채제공 (p.16) 수원화성박물관. 2013,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

〈그림 14〉 18세기 화를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초상화

안은 다음과 같다. 소재는 세탁이 용이한 무명이나 광목으로 하고 회목부분을 절개하고 회목 옆이나 부리 뒤쪽에 끈을 달아 고정하면 발뭍시나 착용감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발직선 길이가 평균 251mm이긴 하나 신고 벗기에 편하도록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한다.

13. 화(靴)

조복의 신을 『세종실록 오례의』, 『국조오례의 서례』, 『태학지』, 『춘관통고』에서는 이(履), 『경국대전』에서는 흑피혜(黑皮鞋), 『경모궁의례』에서는 흑피화(黑皮鞋)로 규정하고 있는데 흑피화(黑皮鞋)는 검은색 가죽(黑皮)을 여러 조각 이어 만든 신목이 긴 신발로 바닥인 창(昌)과 발을 감싸는 신을 부분인 혜(鞋),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신목 부분 말(襪), 가장자리 상부의 넓은 깃(絁)으로 이루어진다(장정운, 2003). 혜 부분은 발등에 상하 두 조각을 이어 붙이고 그 조각의 옆선에 뒤축을

감싸는 긴 길이의 한 조각으로 구성되며 각 조각을 연결하는 이음선인 휘(揮) 장식이 있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그림 13〉은 『국조속오례의보 서례』 권2 「가례·전하시사복도설」에 실려 있는 흑피화 도식과 흑피화를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김영(金瑩, 1780~1868)의 유물이다.

〈그림 14〉의 조복 초상화에서도 모두 화(靴)를 신고 있고 『여유당전서』의 조복 갓춤에도 흑화(黑靴)가 포함되어 있어(박선희, 2011) 18세기 조복의 신으로 화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모두 흑색의 화를 신고는 있으나 휘 장식이 백색, 혹은 붉은색인 것도 있고 신창의 색상이나 신고 부분의 모양도 초상화나 도식, 유물의 형태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이상에서 조복의 화(靴)를 고증한 결과,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조복 화(靴) 제작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흑피화의 소재는 검은 흑피(黑皮), 안감은 백록피(白鹿皮), 깃은 청서피(靑黍皮)를 사용하고 휘 장식은 바탕과 같은 흑색으로 한

다. 흰 신창은 바닥을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하되 신고 앞부분이 둥글게 위로 말려 올라오도록 제작한다.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50대 남성의 발직선 길이가 평균 251mm이긴 하나 신고 벗기에 불편함이 없고 화(靴)안에 버선을 신는 것을 고려하여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하도록 한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부산 조선통신사 축제의 정3품 삼사신이 착용할 18세기의 조복을 고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통신사와 조선시대 조복에 관한 선행연구, 18세기 조복을 확인할 수 있는 조복 차림의 초상화와 18세기 조복 출토유물, 조복일습의 실제 제작에 참고할 수 있는 전세 유물, 18세기의 조복에 관한 규정과 도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들을 고찰하고,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2015)의 50-59세 남성의 표준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50대 남성의 체형에 맞는 조복의 실제 제작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관(梁冠)은 삼사신이 정3품이므로 3량관을 쓰고 술이 달린 청색의 끈은 머리 둘레에 맞게 관무를 조인 후 잡에 걸어 돌린 후 양 옆으로 길게 늘어뜨린다.

의(衣)는 홑으로 제작하는데 몸판은 붉은색 삼죽항라, 가선은 흑색 삼죽항라를 소재로 한다. 총길이 105cm, 품 32cm, 화장 96cm, 진동 30cm, 고대 12cm, 소매너비 80cm로 제안한다. 목판당코깃에 흰 동정을 달고 몸판과 같은 색의 고름을 단다. 옆트임과 깃, 수구, 도련에 검은 선단을 대고 겨드랑이 부분의 가선은 진동 아랫점보다 위로 올라와 일자형으로 만든다. 길의 형태는 옆선이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싶이 약간 넓어지게 하고 진동 아랫점 겨드랑이 밑에 대(帶)를 끼울 수 있는 고리를 단다. 붉은색 몸판과 검은색 선단 사이에 백색의 가는 선을 끼우고 상침 장식한다. 소매는 진동에서 배래가 수직으로 내려와 둥글게 굴러 다시 직선으로 뻗는 광수의 두리소매로 한다.

저고리와 바지는 백색의 명주로 안감을 넣어 겹으로 제작하는데 저고리는 총길이는 60~65cm, 품

28cm, 화장 78cm, 진동 26cm, 고대 10cm로 하고 수구에 한삼을 길게 달아준다. 바지는 총길이 944mm, 엉덩이둘레 938mm, 허리둘레 869mm의 표준 사이즈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폐슬(蔽膝)은 의(衣)와 같은 소재인 붉은색 삼죽항라로 하고 아래쪽을 골로 하여 위아래 너비가 같은 직사각형의 겹이 되도록 제작한다. 몸판에 선은 두르지 않고 상단에 고리를 부착하여 이고리 사이로 끈을 끼워 허리에 둘러 착용한다. 너비 28cm, 길이 68cm로 제안한다.

상(裳)의 소재는 몸판은 붉은색 삼죽항라, 가선은 흑색의 삼죽항라를 사용하고 전상 너비 36cm(폭 110cm), 후상 너비 44cm(폭 136cm), 길이 94cm(허리말기 너비 5cm 포함)로 한다. 선단을 댄 후에 가선까지 위에서 아래로 1.6cm의 주름을 잡아주고 몸판과 선단 사이에 백색의 가는 선을 끼우고 상침 장식한다. 백색 명주로 만든 너비 5cm의 허리 말기에 전상과 후상이 10cm정도 떨어져 연결하고 허리에 둘러서 왼쪽으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말기 양쪽에 80cm 정도의 긴 끈을 달아준다.

중단(中單)은 홑으로 소재는 몸판은 청색 삼죽항라, 선단은 흑색 삼죽항라를 쓴다. 총길이 130cm, 품 30cm, 화장 87cm, 진동 28cm, 고대 11cm, 소매너비 63cm로 할 것을 제안한다. 소매나 깃의 형태는 의(衣)에 맞추고 몸판과 같은 색의 고름을 달고 흰 동정도 달아준다. 흑색 선단은 초상화와 같이 도련과 옆트임에는 대지 않고 깃과 수구에만 대준다.

패옥(佩玉)은 색상은 푸른빛이 나는 번청옥이며, 형태는 무늬가 없는 민옥(珉玉)형태이고, 착용방법은 술이 없는 청색의 패대 맨 윗부분에 도금된 금속 고리(鉤) 구를 부착하여 대에 걸어 착용하도록 한다.

후수(後綬)는 홍색 공단 겹으로 제작하는데 자수장식은 위부터 구름, 끈자를 넣은 타원, 황·백색의 운학 2쌍, 끈자를 넣은 타원, 연화문 순으로 수를 놓고 위쪽의 타원형 고리 부근에 2개의 금고리를 달고 몸판 아래에 청사망을 연결한다. 너비는 28cm, 총길이는 94cm(허리말기 너비 10cm, 후수 몸판 길이 60cm, 청사망 24cm)로 제안하며 앞쪽에서 여밀 수 있도록 말기 양쪽에 80cm 정도의 긴 끈을 달아준다.

대대(大帶)는 백색의 견에 녹색의 1cm 가선을 두르는데 요 부분과 아래로 늘어뜨리는 신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붙인다. 신의 너비 10cm, 길이 87cm(허리에 두르는 요 포함)로 하고 요의 너비 10cm, 길이 87cm 전후로 하며 요 부분의 양쪽 끝에 가늘고 짧은 끈을 달아 배 앞 쪽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한다. 대대 위에 폐슬을 두르고 그 위에 채색실을 엮어 짠 얇고 좁은 오색의 조대를 두른다.

품대(品帶)는 띠 너비 5cm, 길이 120cm 정도의 원형의 삼은대를 의의 거드량이 밑에 부착한 고리에 끼워 앞가슴에 오도록 하고 뒤는 허리에 내려오도록 띈다.

홀(笏)의 재질은 상아로, 길이 33cm, 아래 너비 5cm, 윗너비 3.5cm로 장방형에 약간 굽은 형태로 제작하며 손으로 잡는 밑부분은 비단으로 싸준다.

말(襪)은 흰색 광목이나 무명으로 제작하고 화(靴)는 소재는 검은 흑피(黑皮), 안감은 백록피(白鹿皮), 깃은 청서피(靑黍皮)를 사용하고 휘 장식을 바탕과 같은 흑색으로 한다. 형태는 흰색의 신창 바닥은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하되 신코 부분이 둥글게 위로 말려 올라오게 하며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한다.

이상으로 정리된 정3품의 18세기 조복에 관한 연구결과가 조선통신사 축제의 삼사신 조복 제작에 잘 활용되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선통신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통복식 고증 재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사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선린우호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의 정신이 오늘날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구혜자. (2001). *한복만들기-구혜자의 침선노트 (I)*.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구혜자. (2010). *한복만들기-구혜자의 침선노트 (III)*.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립고궁박물관. (2013). *왕실문화도감: 조선왕실 복식*.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 2천년*. 서울: 국

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11). *초상화의 비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1699-1782년) 유물 연구. *韓國服飾 19*, 83-14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考察. *韓國服飾 22*, 132-13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경기도 광주 출토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 복식고찰. *韓國服飾 26*, 131-254.
 박신희. (2011). *18세기 이후 통신사 복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논문.
 사이즈코리아. (2015).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최종보고서*. 충북: 국가기술표준원.
 수원화성박물관. (2013). *번암 채제공*.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이강철 외 공저. (2003). *역사 인물 초상화 대사전*. 서울: 현암사.
 이영주, 이상은. (2014). 지리산 남악제 제례복식에 관한 제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4)*, 49-62.
 이은주. (2012). 단종 제왕 복원을 위한 재관 복식 고증. *服飾, 62(8)*, 118-133.
 이자연. (2005). 조선통신사일행의 의례와 복식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8(1)*, 19-30.
 이주영. (2014). 朝鮮信使來聘記錄을 통해 본 1711년 통신사 복식. *韓服文化, 17(2)*, 59-71.
 장민정. (2017). 단령 제도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9(3)*, 159-174.
 장정운. (2003).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연우. (2015). 조선후기 관원 조복의 구성과 형태 연구. *韓服文化, 18(3)*, 131-148.
 최영선. (2004).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해용 금관조복. 자료검색일 2018. 10. 10, 자료출처 <http://www.heritage.go.kr>
 삼은대. 자료검색일 2018. 10. 30, 자료출처

<http://museum.dankook.ac.kr>
심동신 금관조복. 자료검색일 2018.10. 20, 자료출처
<http://museum.dankook.ac.kr>
유수 초상화. 자료검색일 2018. 10.18, 자료출처
<http://www.heritage.go.kr>
정온가의 유품. 자료검색일 2018. 10. 22, 자료출처
<http://www.heritage.go.kr>
정원용 유품. 자료검색일 2018. 10. 30, 자료출처
<http://www.nfm.go.kr>
조선통신사 축제. 자료검색일 2019. 05. 10, 자료
출처 <http://www.tongsinsa.com>
화(靴). 자료검색일 2018. 12. 20, 자료출처
<http://kyujanggak.snu.ac.kr>